

## ‘광주정신 모태’ 흥남순 자택 폐가 방치

군부 독재시대 투쟁·5·18 항쟁 거점 ‘민주 사랑방’  
집주인 3차례 바뀌어...사적지 지정 등 대책 필요

“장준하,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김영삼, 조비오, 송기숙 그리고 이름 모를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에 쫓기던 시위대까지...”  
쓰러질 듯 위태로운 집을 홀로 지키며 사는 흥남순(62)씨는 대문을 가리키며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 다녔던 방문객들의 이름을 줄줄 외었다. 땅바닥을 향해 숙인 고개를 들어올리지 못한 채 “저희 7형제가 부족해서 이 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뇌었다.

그가 연거푸 자신의 집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집이 단순히 그들만의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성숙씨 7형제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재야 인사로 한국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활동에 평생을 바친 고(故) 흥남순 변호사의 자택이 후손들이 빛을 못 이기면서 제 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흥 변호사가 숨을 거두기 전인 지난 1999년 한 차례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고 최근까지 총 3차례나 집 주인이 바뀌었지만 형편이 여의지 않은 후손들은 여태 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거처가 마땅치않은 흥 변호사의 넷째 아들 성욱씨가 소유주의 양해를 얻어 집을 지키고 있지만 건물에 워낙 오래되고 후손들마저 관심을 둘 형편이 못돼 폐가처럼 내버려진 상태다. 방으로 새들어오는 빗물을 막으려고 지붕에 올려둔 장판이나 비닐 조각을 보느라만 착잡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성욱씨는 “아버지 생전에도 빗물이 새 방 곳곳에 양동이나 그릇이 놓여



고 흥남순 변호사

있었다. 가족들이 좁고 낡은 집에 대해 불평하면 아버지께선 ‘몸 누일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 불호령을 내리셨다”며 “집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웃어 넘겼다.

1950년대 중반 흥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부임하면서 거처로 삼은 광주시 동구 궁동 15-1번지 주택은 그가 숨을 거두기 전인 2006년 10월까지 광주시민들에게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의 호남지역 거점으로 사용됐고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학살 당시에는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던 곳이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민주인사부터 시위대에 쫓긴 시민, 학생들까지 밤낮없이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흥 변호사 자택이 엄혹했던 시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민주사랑방으로 쓰인 데는 그가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위원회 전라남도 위원장’, ‘광주 5·18시대 수습대책위원’ 등을 맡으면서 항상 앞장서서 불의와 맞서 싸웠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광주시는 지난 2013년 흥 변호사 자택을 광주지역 민주인사들의 사랑방격인 ‘민주의 집’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건물이 51.23㎡로 비좁은데다 노후화가 심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역 민주인사들의 건의를 받아 광주시가 5·18 사적지로 지정·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흥 변호사의 다섯째 아들 영욱(57)씨는 “저희 7형제가 부족해서 집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되찾아오지도 못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빌 면목이 없고 시민들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여태 이런 사정을 나서서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은 흥 변호사가 서거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로, ‘흥남순 추모모임’은 15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흥남순 변호사의 후손들 형편이 여의지 않아 집 소유권이 3번이나 바뀌면서 지붕(위) 등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 모습도 처참한 수준이다. 광주시는 흥 변호사 자택의 역사성을 감안해 민주의 집, 5·18 사적지 지정 등을 추진했으나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임 행진곡’ 반대 박승춘 보호처장 5·18행사 지원 경찰에 포상 잔치

국감초점-국가보호처  
취임후 24명 무더기 포상  
이들 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

국회 정부위원회의 10일 국가보호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거부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보호처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맹폭을 퍼부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의 인사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박 처장이 보호처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야 3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보호처장이 아닌 처장이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지난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3년 동안 방치했다는 점과 보호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정부위원장은 “야당의 입장은 백년 이해하지만, 국감에 기관장으로서 와서 인사말을 하고 간부 소개하는 것 정도는 양해

해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설득했다.

우여곡절 끝에 박 처장은 단상으로 나와 “인사말만 간단히 드리고 업무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갈음하겠다”며 준비된 인사말을 읽어내려갔지만 도중에 이 위원장이 “가까지만 하고 간부를 소개해달라”고 끊자, 박 처장은 인사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 처장 취임 이후 5·18 행사 지원에 나선 경찰이 무더기 포상을 받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김해영 의원이 이날 배포한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정부 및 처장 포상 자료’에 따르면, 박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이후 보호처 주관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 지원 명목으로 총 24명의 경찰 공무원에게 처장 포상을 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불거진 2013년 이후 매년 6명씩 포상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뒤에서는 포상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고위공직자로서 비상식적인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처장이 4년 전 아들의 중소기업 진출공단 채용 과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박 처장의 아들은 서류에 ‘보호처장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필기, 실기, 면접을 치렀다”며 “박 처장의 아들만 특별하게 우월적 지위에서 특례를 받고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양항 국내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육성

해수부 3차 항만계획 확정고시  
컨테이너 4선석 자동차부두 전환

정부가 광양항을 오는 2020년까지 여수석유화학, 광양제철소 등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부두 및 항로 개선, 자동차 환적거점화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항만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반영된 수정 계획에는 급증하는 자동차 환적화물 처리를 위해 3·2단계 컨테이너 부두 4개 선석을 자동차 부

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149억원을 투자한 배후단지과 육지부 사이의 배수로 제방 축조사업에 292억여원을 추가로 투입해 나머지 구간도 완전히 정비하게 됐다.

144억원이 소요되는 배후단지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성황고교 사업도 우선 접속도로 600m의 개설계획이 반영돼 회차해야 했던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또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춘 항입구의 암초 제거와 항로 준설을 포함해 1만8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

박에 대응하기 위해 24월 대형 크레인 확보 계획도 포함됐다.

핵심 국가기반산업 확충 차원에서 석탄부두 1개 부두와 수출입품 처리 1개 부두도 추가로 조성하며, 항만 공간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업을 특성화하고 2층 항만배후부지 29만㎡도 수요에 맞춰 공급하게 된다.

중장기 인프라 확충 계획으로 접안과 화물부두 13개 선석 확충 등에 5년 동안 연평균 1269억원을 투자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6482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부산항은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각각 특화 개발된다.

/윤현석기자chadod@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 10월 16일(日) 9:3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